

코로나 이전 수준 여객 회복... 항공업계, 인력·기단 재정비

대한항공 4조 규모 항공기 주문 티웨이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 제주항공 보잉 'B737-8' 도입



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를 넘긴 항공업계가 '항공 정상화' 수준에 가까이 도달하고 있다. 다만 4분기로 들어서며 터진 대내외적 악재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86%가량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4분기 여객실적(549만1286명) 대비 180.8%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9년 4·4분기 이후 3년 6개월 만에 1500만명을 돌파하며 '항공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하지만 중국발 여객 증가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9월 국제선 지역별 여객 점유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였

다. 반면 올해 9월 국제선 여객 점유율에서 중국은 14%를 차지하며 회복세가 더딘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항공포털 통계를 보면 9월 중국 노선 이용 여객 수는 83만8876명으로 2019년 동기 대비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지금의 회복 수준은 항공업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엔저 현상과 여행 활성화 분위기로 인해 일본 여객은 국제선 여행

운송 순위 1~3위를 모두 차지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항공 수요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현재 항공업계는 4분기 비수기에 들어선 가운데 고환율과 고유가에 봉착한 상태다.

올해 1·4분기 평균 1200원 후반대를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이 3·4분기 8일 기준 1311원으로 올라비행기 리스비용과 같은 고정비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항공유 가격도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높아진 상황이다. 결국 지출할 수밖에 없는 고정 비용이 커지는 셈이다.

항공사들은 이러한 위기를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선제적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중이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여객 사업량 회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성과 우수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적극 영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채용 공고를 통해 200여명 채용을 목표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17일까지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공개 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

또한 항공사들은 기단 확충과 강화를 위해 자본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항공은 미국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항공기 B737-8의 첫 도입을 7월 완료했다. 제주항공은 남은 차세대 항공

기 1대를 비롯해, 화물 전용기 1대를 연말까지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번 항공기 도입에서는 '운용 리스' 방식이 아닌 '직접 구매' 형태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새 항공기인 만큼 연료 효율이 대폭 개선돼 연료비·기재 정비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기존 대비 연간 12%의 운용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보유한 항공기 중 18%가량이 20년이 넘는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추가 주문하며 기단 강화에 나섰다. 대한항공도 지난달 30일 미국 에어버스사의 A321neo 7호기 도입을 마친 데 이어 4조원을 들여 같은 기종의 항공기 20대 추가 주문 계약을 맺은 상태다.

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치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중국 특수는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국제선 여객 회복 추세 속에서 서비스와 기단 교체로 항공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

정연인 사장 "무탄소 에너지 확산 앞장"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에너지빌리티

원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국내 에너지 자립 기여할 것"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무탄소 에너지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집중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23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 참가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에너지 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앵커기업 자격으로 발표에 나선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수소 등 고효율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이 지난 7일 '2023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 참가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에너지 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무탄소 에너지의 확산"이라 설명했다.

정 사장은 무탄소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구상을 밝혔

다. 대형원전, SMR, 해상풍력 등을 통해 무탄소 전기를 공급하고 남은 전기는 수전해로 청정수소를 생산해 각종 산업과 운송 등에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정 사장은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탄소중립은 물론 국내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무탄소 에너지 핵심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사업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청정 전기 생산을 위한 대형원전, SMR, 해상풍력 등 무탄소 발전 주기 경쟁력을 높이며 공급을 확대하며 청정 수소 생산 기술도 고도화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드블레즈 사장 "친환경 전동화 차량 전환 박차"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

'테크놀로지 기반 성장' 비전 제시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7일 부산벡스코(BEXCO)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가해 국내 투자 성과를 소개하고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스τέ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사장은 이날 인베스트 코리아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서 르노코리아가 국내 누적 투자액 5조 원을 바탕으로 달성한 누적 생산 370만 대 및 지속적인 해외수출 기여를 성과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의 우수한 산업 및 인적 인프라가



스τέ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사장이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연사로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 /뉴시스

외국인 투자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르노코리아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자동차회사'라는 미

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

르노코리아는 그동안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트랜드에 기반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차량 내에서 주문과 결제는 물론 상품 수령까지 가능한 간편 결제 시스템 '인카페이먼트(In Car Payment)'를 비롯해, 실시간정비예약서비스 '패스트트랙 예약(Fast Track Booking)' 등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 솔루션을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선보여왔다. 또 르노코리아는 내년부터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을 포함, 친환경 전동화 차량으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밥캣, 몬테레이 신공장 건립 추진

'M-시리즈' 로더 생산 예정

두산밥캣이 북미 시장의 건설장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에 새로운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생산 역량 확대에 나선다.

두산밥캣은 8일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지역에 약 4000억원(3억 달러)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공장은 약 6만 5000제곱미터(2만 평) 규모로, 두산밥캣의 대표 제품인 'M-시리즈' 로더를 생산해 북미 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그위너 공장은 프리미엄 라인인 'R-시리즈' 로더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몬테레이 신공장은 2026년 초 준공해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공장 가동 및 기존 설비 제조공정 효율화를 통해

두산밥캣의 북미향 로더 제품 생산능력은 지금보다 약 20%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 수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캣박 두산밥캣 부회장은 "최근 5년간 가파른 성장을 통해 회사의 외형이 2배로 커지면서 제품 수요가 지속 증가해 왔다"며 "새로운 거점 구축으로 인한 생산 역량 확대는 추가적인 장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밥캣은 몬테레이 신공장을 구축하며 기존 한국, 미국, 체코, 프랑스, 독일, 인도, 중국에 이어 멕시코까지 8개국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게 됐다. 멕시코의 대표적 공업도시인 몬테레이는 풍부한 노동력과 인건비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무관세 혜택도 적용된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2023 우수기술 세미나' 개최

협력사 제조 역량 강화 모색

LG전자는 협력사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 A)과 국내 협력사 60곳, 1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023 우수기술 세미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대학·공공 연구기관이 세미나에서 ▲생산관리 및 회로·소자 ▲자동화 및 금형·소재 등 12개 분야에서 직접 개발한 선행 기술 및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포함해 ▲경북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대학·공공연구기관 7곳이 참여했다.

LG전자는 세미나에서 소개된 기술의 이전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 상담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생산관리 분야에서는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공장 통합관리 기술과 효율적인 로봇 공정 운영을 위한 작업 분배 장치 활용 기술, 자동화 분야에서는 자동화 용접장치와 및 로봇 제어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왕철민 LG전자글로벌퍼레이션센터장 전무는 "협력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상생의 핵심"이며 "협력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